



# 교섭속보

## 14호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송은옥

산별총파업 7-1

##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이변은 없었다.

###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결과 - 조정 중지

▲7/6 1차 실무교섭, 7/9 2차 실무교섭, 7/10 3차 실무교섭 → 타결안 없음!

▲7/5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 노사 입장 차 줄일 것 주문했으나

마지막까지 ‘설마’를 생각하며 조정회의를 기다렸던 조합원들의 바람은 결국 ‘바람’으로 끝났다.

첫 조정회의부터 3차례의 실무교섭까지 임금과 핵심 요구안에 대한 취지와 중요도를 설명했지만 사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사측의 이 같은 태도는 마지막 타결 시점인 7월 11일 2차 조정회의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조정회의에서 중노위 위원들은 노사 입장을 좁히기 위해 노사 각각 회의를 진행했고 노사 양측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조율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정할 수 있는 안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조정중지’는 파업을 막기 위해 혹은 타결의 의지가 있어 타결안을 내는 것과는 반대로 의지가 없거나 안이 없어 사측에서 아무런 타결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원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2차 조정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노사 합의를 위한 교

섭은 없다. 사측이 우리의 분노를 잠재워 줄 만한 타결안이 나오기 전까진.

우리들의 피땀으로 세운 고대의료원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갈아넣으며 지속되고 있는 눈부신 발전을 마치 그들만의 노력 덕분인 양 구는 모습에서 의료원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접어버렸다.

의료원은 그 스스로가 1만 직원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노사관계, 새로운 노사관계를 직접 만들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려 고맙다.

우리의 파업을 결심할 수 있게 해주 고맙다.

의료원은 2021년보다 더욱더 거센 파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 파업전야제 및 파업 지침

## ◆ 파업전야제 참가 지침 ◆

- 오후 5시 30분 : 식사 완료 후(도시락 지급) 병원 로비로 집결
- 오후 5시 50분 :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생중계 진행 (유튜브 채널 “보건의료노조TV” 에서 파업전야제 시청 가능)
- 오후 6시 45분 : 지부 교섭상황 공유 및 파업 지침 발표
- 필수유지 업무 부서 : 파업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파업전야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 ◆ 산별총파업 참가 지침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모든 조합원은 2023년 7월 13일 오전 주간근무부터 (영양팀은 05:0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며 각 병원 거점에 집결하여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 7월 13일 S, D, E, N(첫 나이트) 근무자는 부서에 출근하지 않으며 파업장소로 집결한다.
- 안암병원 조합원은 병원 로비에 10시 30분까지 집결한다.
- 구로병원 조합원은 새롬교육관에 10시 30분까지 집결한다.
- 안산병원 조합원은 병원 로비에 10시까지 집결한다.

## 중간관리자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운영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다.  
노동조합은 행위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